

미륵산 케이블카 부정투표 의혹

공무원 대거동원 억지투표...공정성 의문

경남 통영시(시장 김동진)가 추진하고 있는 미륵산 케이블카 설치 논란이 갈수록 꼬이고 있다.

케이블카 설치에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의 하나로 145억원의 국비가 투입돼 오는 2004년 6월 완공될 예정이다. 불교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경관이 훼손될 뿐 아니라 고압선에서 나오는 전자파 문제, 운영시 발생하는 소음 문제 등을 거론하며 반대 운동을 벌여왔다.

이번에 새롭게 불거진 문제는 12월 27일 통영시가 실시한 설치 사업에 대한 주민투표. 통영시는 27일 투표에 3만3천143명(투표율 33.3%)이 참가해 개표 결과 찬성 83.4%(2만7천491명) 반대 16.5%(5천457명)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옹호사측과 통영환경운동연합측

환경평가 실시 안하면 다시 산문폐쇄

통영환경연합 등 공사중지 가처분 추진

은 투표보다 먼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투표가 사업 추진시 발생할 자연파괴에 대한 책임을 주민들에게 돌리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지적했다.

옹호사도 지난해 12월 17일부터 단행한 산문폐쇄를 31일자로 철회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다시 산문폐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통영환경운동연합측과 연대해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통영시는 문서상으로는 이미 12월

20일 착공한 상태다. 통영환경운동연합과 옹호사측은 15일 통영시청 앞에서 케이블카 건설 사업을 규탄하는 대규모 항의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주민투표의 실시 후 제기된 문제점은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다. 통영환경운동연합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주민투표가 관제투표로 인한 부정선거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성명서에서 투표가 △공평 공정한 선거중립 위원단이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고, 공무원이 대거 동원되어 억지투

표 참가를 유도한 점 △각 통장 관계자들이 노인 생보자들에게 압력을 가해 투표에 참여하게 한 점 △각 사업장을 방문하여 집단투표를 하도록 지시한 점 등을 거론했다. 여기에 20일 (주)효성과 설치공사 계약을 마친 상태에서 한 점도 주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비난을 하고 있다.

두레생태기행 김재일 대표는 "통영시가 케이블카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식생이 탄실하고 경관이 뛰어난 미륵산에 '아열대식물원'을 세우거나 미륵산 해변에 '해양동식물원'을 세운다면 관광벨트와 국제에도 합당하고 케이블카 사업보다 수익성도 앞서고 미륵산의 자연생태계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nia.com



◇'100만 촛불평화대행진'에서 진관스님이 목탁을 치며 '소파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100만 촛불평화대행진' 회향

진관스님등 종교인·시민 3만여명 참가

2002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31일, 살인미군 참회와 불평등한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을 촉구하는 함성이 광화문을 뒤덮었다.

진관스님(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문규현 신부, 홍근수 목사 등 종교인들과 3만여 시민들은 오후 6시

부터 광화문에서 '100만 촛불평화대행진'을 열었다. 미선이 효순이를 위한 묵념, 애국가 제창, 오종렬 여중생 범대위 상임대표의 인사말로 시작된 대행진 본행사는 장사익씨와 양희은씨의 노래, '2003 자주평화'라고 쓰인 글씨에 불이 타오르면서 절정에 달했다.

본 행사 말미에 '미군장갑차故 신효순, 심미선 양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신년 메시지를 통해 "2002년은 불평등한 한미관계에 반대하고 한국민의 자주권회복에 불을 지핀 역사적인 한해였다"고 평하고 "2003년은 민족 자주의 꽃이 활짝 피는 해, 평화통일의 길이 열리는 해, 오만한 미국으로부터 한국민의 자주권을 쟁취하는 한 해가 되게 하자"라고 밝혔다.

본 행사가 끝난 뒤 참석자들은 미대사관 방향으로 진출해 '인간권 및 기행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경찰의 저지로 무산된 후, 오후 11시 경 자진 해산했다.

이에 앞서 진관·수경스님 등 '미군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 부시 공식식사와 및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촉구 종교인 단식기도단'은 같은 날 오전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해산식을 열었다.

한편 여중생 범대위는 2003년에도 매일 오후 6시 광화문 촛불행진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범국민촛불평화대행진을 매일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25일 (가칭) 재판무효! 살인미군 처벌! 부시공개 사과! SOFA 전면 개정 2003년 자주평화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아프가니스탄 칸다하르에서 난민들과 함께 하고 있는 법륵스님.

아프간 난민 동사자 속출

법륵스님 "텐트·식량·의복 등 최악"

아프가니스탄 난민 구호 사업에 나서고 있는 법륵스님 등 정토회 관계자들이 12월 9일부터 25일까지 칸다하르 지방 등을 답사하고 그 결과를 본지에 보내왔다.

영하 15도의 강추위를 오르내리는 칸다하르 난민 캠프는 유니세프(국제연합아동기금)와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가 구호사업에 나서고 있지만 텐트, 식량, 식수, 의복 등 모든 것이 최악의 상태로 어린이 10명이 동사하고 차관 캠프에도 3명이 동사했다.

정토회는 이번 답사에서 가져간 의복 15만점을,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가 직접 지원하는 자리다쉬 캠프를 제외한 1만 5천가구에 지원했다. 또 난민촌 주변 마을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학교가 부서진 채였지만 교실 바닥에서 수업은 계속되고 있어 학교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법륵스님은 "유민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선 국내 불자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원문의: 02-587-8995

정리=남동우 기자

환경영향평가 전 공사착수

발주자·시공사 과징금 부과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마련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착수할 경우 공사 발주자 뿐 아니라 시공업제도 처벌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던 중 미리 공사를 시작했을 때 발주자만 검찰에 고발해 왔으나 실효성이 적다고 판단, 시공업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고, 1월 중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방침

이다. 개정안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2004년에 발효된다.

환경부는 또 환경영향평가 때 자연, 생활, 사회경제 등 3개 분야 23개 항목 중 앞으로는 문제소지가 있는 중요한 대목만 심도있게 조사하는 스코핑제도(중점평가제도) 도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를 공사 완료 후 3~7년까지 확대해 대기질이나 소음, 수질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남동우 기자

주지 이취임식·송년법회

한국불교금강선원

서울 한국불교금강선원(이사장 활안)은 12월 25일 선원법당에서 주지 이·취임 및 송년법회를 봉행했다. 금강선원 이사장 활안스님을 비롯해 400여 대중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포교봉사대상 시상, 주지 이·취임, 활안스님의 <금강경오가해 특강> 출판 기념식, 예술대학 졸업발표회 순으로 진행됐다.

박봉영 기자

송광 장애인복지관 수탁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광주시 광산구 송광 장애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한다.

송광 장애인복지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물리치료실, 언어치료실, 심리치료실, 직업재활실, 사회교육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일일 300여 명의 장애인들이 이용 가능하다.

강유신 기자



◇한·중 불자들이 천태산만년사에서 양국의 전통행다법을 시연하고 있다.

중국 천태산(天台山) 만년사(萬年寺)에서 제1차 한·중 다도 교류 대회가 열렸다. 12월 26일 천태산 지자담원에서 한국의 천태종 월광사, 부산 삼광사, 가예원 중앙회, 월간 <茶의 세계>와 중국측 만년사 천태현 다도담이 참석한 가운데 거

중국 천태산 지자담원서

한·중 다도교류대회 열려

행된 이번 법회는 육법공양을 시작으로 양국의 전통 행다법 시연 등으로 진행됐다.

만년사 스님 100여 명과 천태현의 정부 관리들이 대거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 국경사 방장 가명(可明) 스님은 "한국과 중국의 천태종은 고려 대각국사 의천 스님의 지극한 발원으로 깊은 역사적 인연이 있으며, 이번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천태산 만년사와 차문화 교류를 가진 것은 매우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만년사는 신라의 도육존자가 주석하면서, 차를 대중에게 공양했던 역사적 현상으로서 한국 차문화와 인연이 깊다. 또한 일본에 차를 전한 영서 선사(永西禪師)의 <적다양생기(喫茶養生記)>를 전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김재경 기자

"수자원공사 사장 즉각퇴진하라"

지리산 댐건설 반대 시민단체들 성명

수자원공사의 댐 설명회 경비 지원과 관련 함양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수자원공사 사장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본지 402호 16면 참조) 지리산댐(마천댐) 추진 백지화 주

민대책위, 함양시민연대, 지리산권 종교연대 등은 12월 26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12월 23일 마천 지역 단체가 추진해 주민 140여명이 참석한 '응답댐 현장견학'에서 수자원공사 차량대비비 등 일체의 비용을 지

불하고 대전 본사로 주민을 인도해 '주민설명회'를 열 것은 댐 추진에 수자원공사가 개입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수자원공사의 이러한 개입은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수자원공사 사장의 지리산댐 추진 계획이 없다는 거듭된 입장 표명은 지리산댐을 추진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적인 거짓말"이라며 수자원공사 사장의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남동우 기자